

# “마감전 발표 경쟁률, 최종 경쟁률과 상이… 주의해야”

## 대입정시 내일 마감

대학별수시 이월인원·경쟁률 변수  
서울대 경쟁률 2005년 이후 최저  
마감 전 원서접수… 눈치작전 치열

2019학년도 4년제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3일 마감된다. 막판 눈치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시모집 이월인원이 많은 대학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31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서울대 경쟁률이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해 타 대학 경쟁률과 입시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1일 각 대학과 입시업체에 따르면 2019학년도 수시모집 이월인원이 발생 정시 모집인원이 소폭 증가했다. 서울대는 당초 정원 대비 31.7%(217명)를 더 선발하고, 고려대는 39.1%(239명), 연세대는 26.4%(267명)를 정시모집에서 더 뽑는다. 이들 대학의 수시 이월인원은 서울대와 고려대는 증가했지만, 연세대는 전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입학관 내 2019 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서류접수 창구에서 이 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한 지원자와 대리인들이 입학 전형을 위한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년대비 감소했다.

서울대 자연계열 수시 미등록자는 대체로 다른 대학 의학 계열로 일부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고, 연세대와 고려대 미등록자의 경우는 서울대나 의학계열 등으로 이탈 인원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건국대도 앞서 예고한 모집인원(1171명)보다 32명(정원내 20명, 정원외 12명) 늘어난 1203명을 모집한다. 건국대 입학처 관계자는 “정시모집인원이 약간명씩 늘어 수험생 입장에서 그만큼 도전할

기회가 많아졌다”며 “최근 10년간 정시모집 입학생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모집단위별 백분위 수능 성적 편차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수시 이월인원은 각 학교별로 상이하므로 자신이 지원을 희망하는 모집단위별 이월인원을 파악해 참고하는 게 좋다. 다만 이월인원이 많아도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올라가면 합격선이 올라가므로 이월인원이 많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중요한 것은 전체 규모가 아니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변화”라며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고려대 노어노문학과와 의예과 2018학년도엔 2명 이월돼 6명을 선발했지만, 2019학년도엔 이월 인원이 없어 4명을 선발하는 등 모집 단위별 이월 인원은 차이가 난다.

대학별 공개하는 마감일 마지막 경쟁률도 최종 경쟁률과는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 31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서울대 정시 가군 일반전형에는 마감전 오후 3시 경쟁률을 보고 막판에 원서접수를 한 수험생이 전체 지원자의 절반이 넘는 등 눈치 작전이 치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영어교육과의 경우 마감전 오후 3시 경쟁률이 0.75대 1로 미달이었지만, 최종 마감 경쟁률은 7.88대 1로 정원이 5명 이상인 인문계열 모집단위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돌아섰다.

또 서울대 정시 가군 일반전형 경쟁률이 3.58대 1로 전년도 같은 기준(4.36대

1)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 타 대학 경쟁률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올해 서울대 정시 경쟁률은 2005학년도 선택형 수능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은 평가이사는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서울대 소신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시험이 어려워진 만큼 최상위권 층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일부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자연계열의 경우 수능 과탐II 응시자 감소가, 인문계열은 제2외국어/한문 과목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의 지원 감소가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대학별로 3일까지 진행된다.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아주대, 충남대 등은 2일 마감하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대다수 대학은 3일 원서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한홍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기업을 채용경기 “작년보다 좋지 않을 것” 환자 흥기에 의사 사망… 의료진 폭력 ‘무방비’

잡코리아, 인사담당자 181명 설문  
‘신입 수시 채용’은 증가 전망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올해 채용경기가 작년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채용분야에서 주목받을 키워드로는 ‘신입 수시 채용 증가’가 꼽혔다. 1일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181명을 대상으로 ‘2019년 예상하는 채용시장 전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4명에 달하는 45.3%가 ‘작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10.5%에 그쳤고, 44.2%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보다 적게 채용할 것 같다고 예상하는 이유 중에는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채용도 적을 것 같다’는 답변이 6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력감원을 계획하고 있어 채용은 적을 것 같다’는 응답이 35.6%, ‘퇴사하는 직원의 공백을 충원하지 않을 것 같다’ (34.5%)거나 ‘사업

응급실 위주 보다 병원 전반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목소리

서울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흥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하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흥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러 병원에서의 의료진을 상대로 한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 사건은 여러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망치로 병원 컴퓨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환자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 장애수당이 줄어들자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전북 익산에서는 술에 취해 손과 발로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해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번 의사 사망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하루 전에는 인천 부평구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화가 난다며 의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상당수 병원 폭행이 응급실에서 이뤄지다 보니 대책 마련도 응급실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응급실에 보안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폭행법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에서도 지난달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번 신경정신과 살해 사건으로 응급실뿐 아니라 병원 전반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응급실뿐 아니라 진료실 등 병원 전반에서 의료인이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며 “병원 내 폭력 근절은 의사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환경을 위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 기해년 새해 소망 사자성어 1위는?

자영업자 ‘마고소양’  
직장인 ‘무사무려’  
구직자 ‘소원성취’

### 인크루트 1270명 설문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직장인과 구직자, 자영업자들은 새해 소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마고소양(麻姑搔痒)’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크루트가 지난달 20일~28일까지 성인남녀 1270명을 대상으로 ‘2019년, 본인이 바라는 새해 소망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됨’을 뜻하는 ‘마고소양’ (15.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무 생각이나 걱정이 없음’을 의미하는 ‘무사무려’(無思無慮·13.0%), ‘원하던 바를 이룸’이라는 뜻의 ‘소원성취’(所願成就·11.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구직상태에 따라 직장인은 ‘무사무려’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구직자는 ‘소원성취’를, 자영업자는 ‘마고소양’을 새해 소망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로 꼽았다.

또 ‘2019 새해 소망 이색 사자성어’로는 ‘건강최고’(24.2%)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취업성공’(21.0%), ‘보포대박’(14.6%), ‘미음단련’(8.7%), ‘연봉인상’(7.5%), ‘여행가자’(5.9%) 순이었다.

/한홍수 기자

## 불어불문학회 신입 회장에 홍성호 성균관대 교수 취임

성균관대(총장 신동렬)는 프랑스어문학과 홍성호 교수(사진)가 지난 달 8일 이화여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불어불문학회 정기총회 및 겨울학술대회에서 제5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이날부터 1년이다.



홍 교수는 1991년부터 성균관대 프랑스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내에서 학생처장, 문과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다.

/한홍수 기자

## 올해 영유아·아동 의료 혜택은 난청 환아 보청기·미숙아 1000만원 지원

2019년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올해부터 난청 환아에 보청기를 지원하고,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충치 치료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 발견해 재활치료를 보청기 착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 4000원)의 만 2세 이하 아동이다.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질한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현재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올해부터 1kg 미만의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kg 미만 환아에 대한 최고 1000만원 지원하는 구간을 신설한다.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세경 기자